직장단체 세밑 자비행 '봇물'

성훈따주기 공덕회 군부대 진료…염주·음료등 보시

서울시청 심월회 노숙자 시설에 의류·침구 제공

전국 금융단불교회 소년가장에 생필품·성금 전달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내기가 절실해지는 계절. 세밑 한파를 녹이는 직장직능 불교단체의 자비행이 분주하다. 얇은 월급봉투를 털어 이웃과 훈훈한 온정을 나누고자 하는 단체는 심우회, 수원교도소불심회, 수원구치소불심회,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 서울시청 심월회, 국토연구원 국불회, 성훈따주기공덕회, 국민체육진흥공단무량회 등이다.

성훈따주기 공덕회(회장 정유진)는 12일 화천 사창리 27사단을 방문, 혹한기에 감기를 비롯 근육통 및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장병들에게 따주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음료수, 빵, 합장주 등을 각각 1백개씩 보시한다.

군장병 불자 지원모임인 심우회(회장 이청정행)도 19일 양구 21사단과 2사단을 찾아 7백명 분의 합장주를 비롯 염주와 떡, 보온물통을 전달한다. 2사단에서는 2백50여 명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도 봉행한다. 심우회는 또 12월 말에 양로원과 고아원도 방문할 계획이다.

수원교도소불심회(회장 고왕식)는 연말연시에 회원들의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모아온 기금으로 가족들에게 안부전화조차 할 수 없었던 불우재소자들에게 전화카드를 보시한다. 수원구치소불심회(회장 심재환) 역시 20일 천안 부처님마을에 불우이웃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원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청 심월회는 불자회원들 뿐 아니라 서울시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밀레니엄 이웃돕기 운동'을 벌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07개 노숙자특별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노숙자들에게 의류와 침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심월회 지도법사 조정봉씨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생색내기 행사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와 국토연구원 국불회도 오는 말일 경에 장애인들의 모임인 연화회와 소쩍새마을을 각각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한다

한편 전국금융단불교회는 5일 연꽃마을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의 보금자리인 '행복한 집'을 방문해 휴지등의 생필품과 옷가지, 성금 등을 전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금융단불교회 산하 서울은행, 한국은행불자회도 각각 불우시설을 방문해 성금을 보시했다.

각 단체의 이같은 자비행은 IMF의 터널을 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직장직능 불교단체 회원들에게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헤아리고 나누는 삶을 사는 기회가 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성훈 따주기 공덕회는 훈련에 지쳐있는 장병들에게 따주기 자원봉사를 통해 질병을 치료해 줄 뿐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정을 전하고 있다.

동국학원 녹원이사장 취임 축하연

제19대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취임 축하연이 11월 29일 동국대 상록원 3층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파계사 조실 도원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황수영·신국주·민병천 전 동국대 총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생명나눔회 대경지부 창립3돌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 대경지부(지부장 심업)는 11월27일 영남불교대학·관음사에서 창립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과 대경지부 지도법사 득도스님, 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유상종 대구불교신행단체연합회장, 이재용 남구청장,고경순 자비의전화 회장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경불련 창립 8돌 기념식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운영위원장 김동흔)은 8주년 기념식 및 기금마련 만찬을 11월26일 세안프라자 2층에서 조계종 포교부장 현진스님, 포교국장 법경스님, 광명선원장 초격스님, 서강대 박광서 교수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김동흔 운영위원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하기 위한 재 창립의 의지로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암 재가 선우회 창립

지난달 15일 무위정사서
서암스님 가르침 따라
부산등 지회도 잇단 출범

서암스님과 인연있는 재가자들의 모임인 서암재가선우회(회장 하만경)가 11월 15일 경북 무위정사에서 창립됐다.

중앙회 창립이후 서울, 대구, 경북, 경기지역에서 이미 지회 창립에 뜻을 모았으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지회가 창립총회를 겸한 기념법회를 열고 본격적인 조직정비와 실천에 들어간다.

서암재가선우회 부산지회(회장 박영병)는 12월 12일 정각사에서 창립기념법회를 열고 서암스님의 가르침과 선수행을 따르며 생활 속 불법을 실천하는 참된 신행활동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하만경 중앙회 회장은 "경북의 조용한 토굴에서 시자도 없이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하는 서암스님의 수행력과 실천은 혼탁해진 현 불교에 반드시 받들어 널리 전해져야 한다"는 말로 서암재가선우회의 창립 목적에 대한 설명을 대신했다. 서암재가선우회는 지회별로 스님의 선수행을 따라 정진하고 내년쯤 각 지역별로 서암스님 초청 순회 법회를 개최해 선수행을 통한 상호교류와 포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누구나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접하고 정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심속 서암선원 건립불사를 발원하고 있으며 포교 및 교화사업을 위한 장학사업과 불우 이웃돕기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산지회 박영병 회장은 "부산지역의 뜻 있는 재가불자들의 생활속 수행과 실천의 힘이 모여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오는 불씨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20일 불교산악인련 송년법회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는 지난 1년을 반성하고 새 천년을 앞서 맞기 위해 20일 오후 5시 타워호텔에서 전국 39개 지회 1천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가운데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대현그룹 창립 23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리는 이날 송년법회는 회원들과 환담하면서 지난 1년간 불교산악인들의 활동을 자축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에 앞서 오후3시 본회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경과보고 및 예결산 심의, 신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한다. 02)2232-6948

강원 불교지도자와 대화

한화갑 총장…의견 국정에 반영

새정치국민회의 연등회 한화갑 고문(국민회의 사무총장)이 부산 ·대구에 이어 11월26일 강릉 현대호텔에서 강원지역 종진스님 및 재가 불교지도자와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신흥사 주지 도후, 월정사 주지 현해, 낙산사 주지 지홍 스님을 비롯 각 지역 사암연합회 스님, 사찰 신도회장 등 55명이 참석했다.

한 고문은 "그동안 부산과 대구 불교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불교계와 많은 대화를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대 상 윤완수 기자
사진부문 고영배 기자
제3회 한국불교기자상 수상

제3회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에 주간불교신문 윤완수 기자<사진 왼쪽>가 선정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대상에 '장묘문화 변해야 한다'를 기획연재한 윤완수 기자(주간불교신문)를, 취재보도부문에 '안동 봉정사 벽화훼손 방치'건을 밀착 취재한 여태동 기자(불교신문)를, 기획보도부문에 '사찰과 자연'을 연재한 남배현 기자(법보신문)를 각각 선정했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네팔불교를 영상으로 담은 본사 고영배 기자<사진 오른쪽>가 영예를 안았다.

불기협은 13일 오후6시30분 동국대 상록원 3층에서 제3회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을 갖는다. 02)734-0777

"연기관 바탕 생명 중시하는 시대온다"

도법스님 울산경불련 법문

울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한종식)은 1일 정토사 삼천불전에서 창립4주년 도법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도법스님은 울산신행단체연합회 조동환 회장, 조계종 울산신도회 김운철 회장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인드라망 세계관과 삶의 철학'이라는 법문을 통해 "새로운 시대는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이 중심이 되어 모든 만물의 생명을 중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경불련 한종식 회장은 법회에 앞서 불교시민운동을 주도해 온 지난 4년간의 살피고 "앞으로 환경운동을 비롯, 불교시민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모임이 되도록 한층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우리 모임에선

천불동 차기회장 선거

천리안불교동호회(회장 이경재)는 새 천년 네티즌을 이끌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은 온라인 상에서 11월 22일부터 회장 후보 추천 및 등록,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 등의 절차를 거쳐 5~11일 7일간의 투표로 선출한다. 회장 후보는 25세 이상, 가입한 지 만 6개월 이상이 되는 회원중에서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금강회 北동포에 성금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인 금강회(회장 김형식)는 11월26일 한국불교언론인회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죽염 세수비누 120 박스와 성금 1백만원을 전달, 동참했다. 기탁물 및 성금은 7일 평불협 방북 대표단을 통해 전달된다. 02)719-4083

국불회 '절수행' 특강

국토연구원 국불회(회장 김의식·사진)는 11월26일 연구원 내 법당에서 명상아카데미 원장 혜봉법사를 초청, '절 수행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하불동 부경모임 법회

하이텔불교동호회 부산·경남모임은 5일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법회를 열어 네티즌들의 신심을 고양하고 회원간 유대를 강화했다. 이에앞서 충청모임은 11월30일 ID 백도령님의 집에서 (아함경) 강독법회를 가졌다.

경불회 교리공부

경희의료원 불자들의 모임 경불회(회장 황보추)는 21일 오후6시30분 연화사에서 12월 두번째 법회를 연다.

부천지역 복지관 합동연수회

부천 덕유·원종종합사회복지관, 부천스포피아는 11월27일~28일 이틀간 경기도 양평 남한강 연수원에서 합동으로 직원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회에 참가한 60여 명의 복지종사자들은 한 해동안 시행해 온 사업을 자체평가하고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는 복지사업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취 지 문

- 수행자의 귀감으로 중생의 빛으로 -

역사는 기록과 문헌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1600여년의 한국불교사에서 비구니 승가는 수행과 교화면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왔으며, 그러한 전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방에 계시는 많은 스님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즈음에서 우리 시대의 초상들은 기록에 의해 판단될 것입니다. 이에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본각스님과 97학번 비구니들은 후대에 수행자의 표상을 전하고, 새 천년 불법홍포의 지침을 삼기 위해 비구니사를 편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자료가 거의 없는 현실을 생각할 때 「비구니사」는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로, 이의 편찬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대 비구니 승가의 교두보가 될 것이며, 또한 한평생 수행으로 일관하여 훌륭한 경지를 이룬 많은 비구니 스님들의 행적을 널리 현창함으로써 불법을 선양하는데 이바지 할 것입니다.

윤리적인 혼돈과 가치관의 변동이 극심한 이때 수행자와 성직자의 행동규범은 사회일반을 계도하는 준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청정승가의 가풍을 온전히 계승하는 비구니 승가의 행적은 현 시대를 밝히고 앞으로의 새 천년을 이끌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비구니사」는 한국불교의 역사 속에 명멸해 간 비구니의 자취를 찾겠습니다.
「비구니사」는 철저한 수행으로 이타의 삶을 실천한 비구니를 발굴하겠습니다.
「비구니사」는 후세에 지난 시대 비구니의 수행상을 전할 것입니다.
「비구니사」는 새 천년 불법홍포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비구니사편찬위원회에 한국불교 전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행과 대중 교화 및 가람수호 등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후대에 사표가 될 수 있는 비구니 스님들을 추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존경하는 스님들께서 '수행자의 귀감으로 중생의 빛으로' 역사 속에 길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9년 11월
비구니사편찬위원회 책임위원 **본각**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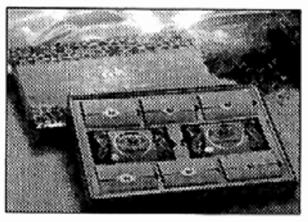
비 구 니 사 편 찬 위 원 회

136-075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156 중앙승가대학교 內
Tel : 편찬위 사무실 (02)927-1627 책임위원 본각 (02)928-2078
팀장 (현진) 019-389-0788 Fax : (02)927-8984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